

3세대 동거가정의 주관적 주거과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ubjective Residential Crowding of Three Generation Family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문 숙 재
원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 사 차 성 란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Associate Prof.; **Sook-Jae Moon**

Dept. of Home Management, Wonkwang Univ.

Lecturer; **Sung-Lan Cha**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variables daughter-in-law and mother-in-law's subjective household crowding. And which is the best index among space per person, persons per room, and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was the next issu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Variables that effected on the daughter-in-law's subjective household crowding were expectation about the number of rooms,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daughter-in-law, duration of marriage, educationl level of mother-in-law, space per person.

In the case of mother-in-law, these were duration of marriage, space per person, expectation about the number of rooms, educational level of mother-in-law.

2. The best objective household crowding index was the space per person.

Finally we need to look at the sub-dimension that composed of subjective household crowding of the old.

I. 문제의 제기

선진국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0% 이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80년대에 이르러 4% 수준으로 아직은 그 비율이 낮으나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 및 산업사회화, 이에 따른 강한 사회이동성, 인구의 도시집중 내지 도시화와 도시적인 생활양식의 확대 등으로 가까운 장래에 닥쳐올 노인문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는 전통적으로 3세대 직계가족을 이상적인 가족형태로 여겨 노부모를 가정에서 봉양함으로써 선진국의 경우 사회복지체제에서 해결하고 있는 노인문제를 가정의 안전기능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도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족형태는 점점 더 핵가족화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가치관은 평등과 공리를 지향하는 민주적인 가치관, 능력과 업적 중심의 평가기준이 지배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보편화되어 노인의 부양을 전적으로 가정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의 공적 부양체제의 도움을 필요로 하나 이 방법은 우리의 사회복지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장기간의 상당한 투자가 요구되며, 시설 수용시 개별적인 노인문제의 해결은 경직성을 띠기 쉽고 그것이 노인의 심리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반면 사적 부양 방법은 어떤 가정형태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는 개별가정의 차원에서는 노부모의 건강상태, 노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사정, 노인과 자녀의 가치관, 노인과 자녀간의 상호교환적 이득, 사회적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나(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개별차원의 결정은 사회적 차원의 주택문제와 직결된다. 대부분 가정이 별거의 방법을 택할 때 주택수요는 더욱 증가하여 매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주택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 연구는 한국 가족의 표준모형으로 3세대 동거가정의 형

태를 제시하였다. 가정은 구성원들의 가장 밀접한 집단으로서 외부환경에 대비하여 보호와 안정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문숙재, 1983) 동거가정의 형태는 노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러나 동거가정은 프라이버시의 침해, 노인세대와 젊은세대간의 시간에 따른 행위의 불일치, 공간과 가사에 대한 주도권, 경제력, 사고방식의 차이 등으로 압박감을 갖는다. 그 중에서도 몇몇 연구에 의하면 부모, 자녀세대간 상호 프라이버시 확보라는 문제가 동거가족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유영숙, 1985, 박재간, 1986, 조원덕, 1984)

프라이버시란 개인이 자신, 집, 가족, 커뮤니케이션 및 자신의 재산과 사업에 관한 강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라 정의된다. 동거가정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존재하는 형식적인 지위관계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라 볼 수 있는 강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쉽다. 이러한 프라이버시의 결핍과 과잉자극은 상호연관된 개념으로서 이 두 개념이 합해져 과밀지각의 개념을 형성한다.

과밀은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요구의 시기, 요구에 대한 반응의 방법과 시기를 통제 또는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지나친 사회적 자극이라 정의된다(Gove et al., 1979). 한 가정의 주부는 며느리라는 지위로 인해 강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해야 하며, 가정 내에서 가족원들에 의해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욕구충족을 해결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특히 3세대 동거가정의 주부는 과밀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신체적으로 쇠약해져 활동능력을 상실했으며 경제력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여자노인은 가정내에서 낮은 지위에 있기 쉽다(홍성애, 1983). 그런데 힘(Power)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밀을 지각할 것이라는(Baldassare, 1981)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힘이 없는 시어머니는 주관적인 주거과밀을 지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3세대 동거과정은 가족규모가 크

기 때문에 객관적 주거과밀 수준이 높을 것이다. 이는 3세대 동거가정내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특별한 가족관계 구조에 의해 생겨나는 심리적인 주거과밀과 더불어 3세대 동거가정의 주거과밀 지각 수준을 높일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자녀세대의 동거형태를 바람직한 노인부양 방법으로서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시어머니와 주부를 대상으로 동거가정의 주거상황에서 주거과밀 지각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들은 무엇이며,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주거과밀지각

많은 주거과밀 연구에서 과밀 개념은 밀도와 연관시켜 정의되고 있다. 과밀의 본질적 개념이 밀도와 같다고 보는 학자들은 밀도차원에서 과밀로 지각되는 임계치를 설정한다. 반면 두 개념을 다른 것으로 보는 학자들은 밀도란 공간 크기에 대한 사람수의 비로 표현되는 객관적 지표로서 그리고 과밀은 개인에 의해 해석되는 경험적 혹은 주관적 상태라고 본다 (Stokols, 1972). 후자의 분류는 공간의 제한이 과밀 지각의 선행조건이기는 하나 그것이 곧 과밀지각의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Baldassare(1979)는 과밀과 밀도를 각각 주거와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객관적 지표로 주관적인 과밀 혹은 지각된 과밀을 주관적 지표로 구분하였다. Stokols(1976)는 밀도와 과밀의 구분을 밀도는 객관적 과밀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주관적인 지각 상태는 주관적 주거과밀, 주거과밀지각, 주거과밀성형 등으로 보다 명확한 분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밀도는 객관적인 과밀을 측정하는 독립적 가치를 지닌 지표로, 주관적 과밀은 일정 밀도 수준 혹은 과밀에 대해 지각 또는 경험하는 상태로 봄으로써 밀도와 주관적 과밀을 각기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다룬다.

Desor(1972)는 과밀을 사회적 원인에 의한 과도한 자극이라 정의하였으며 Baum & Valins (1973)는 과밀을 원치않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징후라 정의하

였다. 이 두 정의는 과밀이 주로 개인의 걱정 사회적 자극 수준을 초과함으로써 생겨난다는 과잉자극이론의 입장을 나타낸다. 과밀에 대한 과잉자극이론의 기초를 마련한 Milgram(1970)에 의하면 과잉(overload)이란 유기체에 부과되는 환경적 투입의 양과 비율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상태이다.

Gove et al. (1979)은 과밀의 경험은 요구받는 시기, 요구에 대한 반응 방법과 시기를 조정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개인에 대한 과잉사회자극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Altman(1975)은 과잉자극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과밀을 이해하는데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초점이 된다고 보았다.

이상의 개념적 구조틀에서 상호관련된 두 개념, 과잉자극과(excess of stimulation) 프라이버시 결여(lack of privacy)가 주관적, 경험적 과밀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roshansky et al. (1976)은 과밀은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선택범위를 제한 받는 상황으로 본다. 이는 과밀이론의 분류로 보면 행동제한이론에 속하는 것으로 과밀 개념의 구성요소로서 Altman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프라이버시가 중요 개념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주관적인 주거과밀 지각이 하나의 과밀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라기보다 여러 이론들의 조합으로 이해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심리경험이라고 보아(최상린, 1984) 주관적인 주거과밀은 일정한 주거공간밀도에 대한 한 개인의 환경으로부터의 요구감(felt demands of environments), 프라이버시의 결여, 이로인한 행동선택의 부자유 등의 과잉 자극상태라고 정의한다.

과밀지각의 기초를 이루는 심리적 차원은 무엇이며 개인에 따라 어느 정도 과밀지각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히기 위한 Taylor (1981)의 연구는 과밀지각의 차원을 사회적 제한(social constraint)과 공간적 제한(spatial constraint)의 두 차원으로 도출하였다. 각 차원에 대해 사회적 지향의 성격을 지닌 사람은 사회적 제한에 대해 과밀을 덜 지각하며 이에비해 비사회적이며 공간에 보다 관심을 갖는 사람은 사회적 제한에 대해 더 과밀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미국내 중국인촌(China town)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한 Chalsa Loo & Paul Ong (1974)의 연구에 의하면 단위주거내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 중 20%가 자신의 주거를 과밀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어, 사회적 요소는 과밀경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주거내에서 과밀하게 지각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고 밝혔다. Daniel Montano & John Adamopolous (1984)는 고밀도의 대인적 상황(interpersonal situation)에서 과밀지각의 기초가 되는 차원들을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도출된 첫째 요인은 행동적 제한(behavioral constraint), 둘째 요인은 신체적인 방해(physical interference), 셋째 요인은 사회적 제한(social constraint), 넷째 요인은 기대 불충족(annoyance with unmet expectations) 등이었다. 이 결과는 오락시설, 구매시설 및 공공장소를 연구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주거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공간적 제한 상황은 행동의 규제, 프라이버시 침해, 과잉자극에의 노출 등 잠재적인 불편함을 포함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제한이 과밀 경험으로 이어지려면 한 개인이 잠재적인 문제에 민감하도록 만드는 배경변수(context variables)가 존재해야만 한다(Stokols, 1976).

Stokols는 이를 상황적 선행조건(situational antecedents of crowding)이라 하여 중립적 방해(neutral thwartings)와 개인적 방해(personal thwartings)로 구분하였다. 중립적 방해는 방해의 근원이 특정한 개인이나 환경에 기인하지 않고 특정인을 향하지 않으며 고의적인 것으로 지각되지 않는다. 반면 개인적 방해는 특정한 개인이나 환경요소로부터 특정인을 향해 이루어지는 고의적인 것으로 지각되며 방해를 받는 사람의 심리적 긴장은 중립적 방해보다 개인적 방해가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부모-자녀세대 동거가정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개인적 방해는 특히 주관적인 주거과밀 수준을 높여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과밀지각의 중심개념인 프라이버시는 두개의 중요

한 심리적 기능에 기여한다. 개인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며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Holahan, 1982). 일련의 학자들은 프라이버시를 개인적 경험, 행동, 의도에 대한 통제(Sidney Jourard, 1966), 시각적, 청각적 상호작용의 규제(Alexander Kira, 1966), 자신에 대한 접근의 통제(Bates, 1964)등으로 프라이버시의 상호작용적 통제 즉 자신을 타인에게 개방하고 폐쇄하는 선택의 자유에 초점을 두어 개념화한다.

Milgram(1970)등을 포함하여 프라이버시에 대한 행동과학적 견해를 갖는 학자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도피를 강조한다. Proshansky et al. (1970)은 프라이버시가 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행동을 최대화시켜 사람들이 사회적 활동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고 하여 역시 행동과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적용시킨다면 객관적으로 과밀한 상태의 3세대 가정의 경우보다 전통적인 가족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어머니와 주부 사이에는 권위체계가 작용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주거내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통제는 보다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포괄적 정의를 내리고 있는 Altman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적 분석에서 프라이버시란 자신 또는 집단에 대한 선택적 통제(selective control of access to the self or to one group)라고 정의하고 성취된 프라이버시가 원하는 프라이버시보다 적은 경우를 프라이버시 침해의 상황이라고 규정하였다. 그의 정의는 다양한 사회단위의 과밀을 포괄할 수 있으며 과밀을 단지 자극의 투입으로서만이 아니라 투입과 산출 두 방향으로 가능한 과정으로 보며 프라이버시는 대인간 접촉에 대한 일시적인 이상적 수준을 반영하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즉 프라이버시의 변증법적 특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Westin은 프라이버시의 상황에 따라 체계적인 분석을 하였는데 프라이버시의 첫번째 상황은 관찰자가 없는 고독이다(solitude) 두번째 상황은 친근감(intimacy)으로 이는 남편과 부인이 다른 사람들로

부터 분리되는 즉 한 작은 집단의 분리와 관계된다. 부부중심적 생활을 지향하는 젊은 부부세대들이 3세대 동거가정을 유지하면서 침해받기 쉬운 프라이버시 상황이다. 세번째 상황은 공공장소에서 한 개인이 인식되지 않는 익명성이며 네번째 상황은 원치않는 침입에 대해 심리적 방어를 강조하는 경우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주거과밀지각은 밀도와와는 다른 차원으로서 과잉자극과 프라이버시 결여가 그 중심개념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과밀지각은 사회적 제한과 공간적 제한이라는 두 심리적 차원에서 형성되며 사회적 제한은 그것이 중립적인 방해(neutral thwarting)인 경우보다 개인적방해(personal thwarting)인 경우 더욱 심각한 심리적 긴장을 발생시키므로 가정내에서 가족원들에 의해 개인적으로 부과되는 사회적 제한은 보다 쉽게 주거과밀지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게다가 프라이버시 결여의 상태는 이러한 외적 제한에 대한 통제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주거과밀지각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아 버리게 되는 것이다.

2. 3세대 동거가정에서의 주관적 주거과밀

어떤 사람들은 전근대사회에서는 주거과밀에 대한 적응기제가 있다는(Mitchell, 1971) 과밀지각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주장하고 있지만 과밀을 인내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와 반대로 Gove et al. (1979)은 문화는 과밀경험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상황과 배경(setting)을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데 이것을 전형적 상황이라 본다면 대부분 문화에서는 전형적 상황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존재하여 이들은 객관적 밀도 수준이 낮더라도 과밀을 경험할 것이라 하여 과밀에 대한 문화적 보편성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핵가족화가 제도적으로나 가치관에 있어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가정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부모세대와 결혼한 자녀세대가 동거한다는 것은 주관적 주거과밀 경험을 피할 수 없는 비전형적 상황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3세대 동거가정이라는 배경은 고밀도에 적응하는 기회로 제공될 수도 있으나 거주자가 특유의 어려움을 발생시키기 쉬운 사

회적 특성이다. 더우기 Stokols(1976)의 1차-2차환경 구분에 의하면 가정은 1차 환경으로서 2차 환경보다 객관적 주거과밀이 더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세대가 동거하는 고밀도 가정에서의 주거과밀지각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3세대 동거가정이라는 상황적 조건하에서 과밀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면, 과밀한 가정내에서 특정의 역할 지위를 가진 사람은 자신에 대한 방해를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들면 역할행동에 대한 기대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가족원들에 더 인접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원치 않는 상호작용의 수준을 감소시킬 수 없거나 사적인 행동을 위해 사용할 가정내에서의 공간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머니이자 며느리로서의 역할지위를 갖는 주부는 좀 더 요구받는 위치에 있기 쉬우므로 과밀한 가정내에서 더 불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

Baldassare (1981)는 권력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밀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그러므로 주거 내의 사회적 지위는 고밀도에 대한 경험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즉 주거의 소유권이나 관할권이 있는 사람은 공간을 좀 더 통제하기 쉽고 행동의 선택이 가능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정 내에서 보다 권위가 낮은 사람은 공간을 더 박탈당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보다 행동이 더 금지된다. 때문에 고밀도의 주거내에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은 공간에서의 활동에 대해 통제할 수 없다고 믿게 된다.

과거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하에서 유지되던 부모의 권위는 현대사회로 오면서 점차 와해되고 있으므로 이는 역할관계를 혼돈시킴으로써 과거 가정내에 존재하던 합법적인 권위에 대한 불일치를 발생시켜 공간을 공유하는 부모와 자녀세대에게 긴장을 야기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과밀주거에서 낮은 지위를 갖는 사람(며느리 혹은 시어머니)은 가정내 공간에 대한 통제와 분명한 권리가 없어 더 불평을 야기할 수 있다.

바람직한 자원^① 대한 사람의 비율 증가가 주관적

주거과밀을 심각하게 한다는 자원경쟁이론에서 “일”은 자원으로 여겨질 수 있다. 가정관리는 하나의 과제로서 이것은 의사결정과 수행의 결합을 의미한다 (Gross et al. 1980). 가정관리의 요소인 의사결정은 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에서도 주부가 독립적인 주부권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바람직한 자원이다.

또한 가정관리자라는 역할의 관점에서 보면 3세대 동거가정은 역할에 비해 인구수가 많아지게 되는 초과 인구배치(overmanning)상태가 된다. 장명옥(1984)에 의하면 집단에 의한 의사결정의 특징은 결정자가 1인 일지라도 결정자는 집단 압력에 의해 제한되며 집단에 의한 의사결정의 전개과정은 개인의 결정과정보다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집단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내포할 수 있으므로 보다 많은 곤란에 부딪히기도 한다. 그러므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거하는 상황은 가정내 역할관계에 대한 일치가 되지 않으면 주관적 주거과밀 수준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한 가정에 동거하는 시어머니와 주부인 며느리가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닐 때 고부간의 역할 관계는 합법적인(legitimate) 권위에 대해 일치하거나 혹은 역할분담으로 의사결정에서의 갈등이 최소화하여 주관적 주거과밀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3. 선행연구

대도시의 인구밀집 현상에서 동기화된 과밀연구는 도시사회학, 동물생태학, 심리학 등의 각 관심분야에서 이론적 발전을 이루어왔다. 도시사회학에서의 연구가 개별단위보다는 집단적 사회현상으로서의 과밀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인간의 건강한 생활에 대한 과밀의 영향은 동물생태학자들의 연구가 인간의 과밀현상에 보다 근접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이 동물이라는 점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들을 인간의 가족관계나 병리현상에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가는 의문시된다.

또한 인간을 대상으로한 연구들은 과밀의 효과에 대해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과밀은 인간생활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영향력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미약하다는 결과 (Fischer et al. 1975)를 보이는 한편으로 일부 연구들은 과밀이 인간의 심리적 긴장, 가족관계의 악화 (Gove, 1979)등을 가져온다고 한다.

하지만 과밀에 대한 연구는 그것이 분명히 인간에게 병리학적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보다는 가정적 입장에서 건강한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쇠약함이 없을 뿐 아니라 완전한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 복지상태라고 정의한다(Mitchell, 1971). 그리고 Loring(1967)은 많은 건강문제는 단지 물리적 과밀에서부터가 아니라 행동의 과밀, 역할의 과중,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사회적 고립으로의 도피로부터 생겨난다고 주장하였다. 즉 주거과밀이 반드시 병리적인 현상을 야기시키지 않는다 해도 가정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 효과를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관계는 지속적이며 개인의 행동과 복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Stokols, 1976, Baldassare, 1978). 사람들은 극단적인 물리적, 사회적 상황에 적응할 수 있으나(Dubos, 1968) 문제는 생존 또는 비생존이 아니라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인 어떤 형태이든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지불되는 비용인 것이다(Altman, 1976).

다른 한편으로 과밀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특정 집단에 따라 자신의 고밀도 환경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Schmitt(1966)는 인구밀도의 부정적인 영향은 문화적 전통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Chalsa Loo & Paul Ong (1984)은 과밀한 주거상당에서 오랜기간 생활해 온 중국인들이 보다 과밀에 잘 적응하는지를 연구한 결과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과밀은 환경적 문제, 건강상 문제, 사회적 갈등, 심리적 긴장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과밀에 대한 노출은 과밀에 대한 혐오감을 강화한다고 하여 중국인들의 과밀한 주거상태가 문

화적인 선호에 기인하지 않음을 입증하였다.

주관적 주거과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을 살펴보면 Stokols (1976)는 공간적 제한을 주관적 주거과밀의 “필수적인 선행조건”으로 보았고 주거과밀 경험의 매개변수를 상황의 사회적, 물리적 특성을 포함하는 환경적 특성과 과거의 경험과 같은 개인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즉 공간적 제한은 어떤 경우나 불편함을 수반하지만 이것이 주관적 주거과밀 경험으로 연결되려면 다른 사람과의 인접성이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하는 배경적 변수(contextual variables) 즉 타인에 대한 적대적 단서가 존재해야만 한다.

Baum & Davis (1976)의 연구도 건축적, 사회적 특징을 사회적 자극수준에 영향을 줌으로써 과밀경험을 매개하는 환경적 변수로 다루었다. Sundstrom (1979)은 과밀지각의 선행조건으로 밀도 및 방의 계획, 정돈상태 등을 포함한 물리적 조건, 가족수, 사회적 분위기 등을 사회적 조건, 인성 및 성별을 개인적 특성으로 지적하였다.

Stokols(1972)는 과밀지각을 객관적인 주거상태를 바탕으로 사회적 혹은 비사회적인 상황적 특성, 그리고 인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의 세 변수군으로 모델화하였다.

이들 연구를 통해 주거과밀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주거의 물리적 특성, 인구통계적 특성, 상황적 특성의 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3세대 동거 가정이라는 가족구성상의 특징과 이것이 발생시키는 가부장적 가족제도하의 고부관계에 의한 상호작용적 특징이 상황적 특성에 포함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주거의 물리적 특성 중 주거밀도 혹은 객관적 주거과밀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되어온 변수는 방당거주인수이다. (강대기 1982, 이경희 1987, 최상림 1984, Alan Booth 1976)이와 더불어 1인당 주거면적(최상림 1984), 주택규모(이경희 1987), 거주인수(이경희 1987, Chalsa Loo et al. 1984)등의 척도를 한 연구에 둘 또는 셋 이상씩 포함시켜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변수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 다변인

체계의 분석을 할 때 한 연구에 동시에 여러 척도를 적용시킨다는 것은 다공선성의 문제를 안게된다. 그러므로 각 연구의 상황적 특성에 보다 적합한 척도를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밖의 선행연구의 결과로서 Chalsa Loo & Paul Ong (1984)은 미국내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주거과밀은 문화적 배경변수나 환경적 변수로 예측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과밀지표인 방수(공간적 요소)와 거주인수(사회적 요소)로 잘 설명되며 후자가 더 강력한 주거과밀 예측변수라고 밝혔다. 이것은 주거 과밀 지각이 문화적 차이보다 문화적 보편성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소득은 객관적 밀도 변수보다 약하지만 역시 유의한 주관적 주거과밀의 예측변수였다.

Gove et al. (1979)은 방당거주인수, 프라이버시 결여, 요구감(felt demands)으로 이루어진 주거과밀 척도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방당거주인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보다 주관적 주거과밀인 프라이버시 결여, 요구감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변수는 성으로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요구를 받고 방해받는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여성이 어머니, 주부, 부인으로서의 역할 의무가 많기 때문에 과도한 요구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lan Booth (1976)는 생활주기 단계가 초기인 가족보다는 중기인 가족이 자녀수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부의 연령은 주거과밀과 체제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경희(1987)의 연구는 주거과밀이 개인의 행동 및 가족관계와 가정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주거과밀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관리행동수준이 낮게 나타나 주거과밀 지각이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주관적 주거과밀 지각에 따른 주거불만과 이사회 당과의 관계를 살펴본 최상림의 연구는 Chalsa Loo (1984)등의 연구와는 달리 소득, 교육, 주택소유형태가 주관적 주거과밀에 부적인 영향을 주며, 2세대 보다 3세대 가구가 더 과밀지각 수준이 높고 거주기간

은 일정기간 거주한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다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과밀지각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거주기간에 따른 조절작용이 있음을 암시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거환경적 변인, 인구통계적 변인, 상황적 변인을 주관적 주거 과밀의 선행조건으로 보고 특히 3세대 동거가정에서 주관적 과밀실태와 영향변인들을 선별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3세대 동거가정에서 주거과밀지각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과밀 척도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시어머니와 주부의 주거과밀지각은 주거환경적 변인, 인구통계적 변인, 상황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시어머니와 주부의 주거과밀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차이가 있는가? 그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1)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주거환경적 변인, 인구통계적 변인, 상황적 변인에 관한 문항과 주부와 시어머니의 주관적 주거과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A. 주거환경적 변인

주거환경적 변인에는 1인당 주거면적, 주택소유유무, 주거형태, 거주기간이 포함된다. 방당거주인수가 1인당 주거면적과 비교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B. 인구통계적 변인

인구통계적 변인에는 거주인수, 결혼지속기간, 시어머니와 주부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주부취업유무의 변인들이 포함된다.

C. 상황적 변인

상황적 변인에는 부모세대와 결혼한 자녀세대가 동거를 시작한 시기, 동거기간, 시어머니와 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정도, 기대주택수준(방수), 가족주의, 가정관리 의사결정 시어머니의 가정내 지위등의 변인이 포함된다. 가족주의는 Bardis (1959)의 가족주의 척도 중 우리의 실정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6개 항목을 선택하였다. 가정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은 식, 의, 주생활 관리, 가족관리, 경영 및 장보기의 5개 분야에 관한 15개 문항에 대해 시어머니와 주부 중 주로 누구의 의사결정에 따라 가정관리가 이루어지는지를 5점척도로(항상 시모의 의견대로-항상 주부의 의견대로 까지) 응답토록 하였다. 시어머니의 가정내 지위는 동거하는 자녀세대에게 상속, 혹은 증여한 재산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응답한다.

D. 주관적 주거과밀

강대기 외(1982), 이경희(1987), Gove et. al. (1979)를 참고로 하여 프라이버시 결여에 관한 3문항, 요구감(felt demands)에 관한 3문항, 공간적 제한에 대한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매우 그렇다' '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척도이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손자녀를 둔 3세대 가정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인 주부이다. 주택규모, 주택형태, 주부 연령 등의 고른 분포를 위해 강북과 강남지역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교씩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일부는 직접 면접하였다.

자료의 수집기간은 1988년 5월 24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시어머니와 주부를 한 조로 총 300부를 배부, 250부를 회수하여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23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주거환경적 변인, 인구통계적 변인, 상황적 변인에 따른 주거과밀 지각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ANOVA 및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다. 시어머니와 주부의 주거과밀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기 위해 단순상관관계, ANOVA를 통해 $p < .1$ 수준에서 유의한 변인들을 골라 이 변인들을 회귀분석하였다. 다공선성으로 인해 하나의 변수를 선택해야 하는 과

정에서는 각 변인을 포함하는 두 회귀분석의 결과 산출된 R^2 를 비교하였다. 이상의 과정에서 선택한 변인들을 포함하는 중회귀분석이 최종적으로 실시되었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수는 시어머니와 주부가 각각 230명씩이나 각 문항의 기재여부에 따라 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자 수는 다소 차이가 있다.

주부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8.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초·전문대 이상이 30.4%였다. 시모의 교육수준은 무학이 47.0%, 국민학교 졸업이 32.0%로 주부에 비해 매우 낮다. 이는 사회인구학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부의 연령은 41~50세가 42.4%로 가장 많았으며 31~40세가 37.3%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는 30,40대 주부가 전체의 7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모의 연령은 61~70세가 43.7%, 71~80세가 35.5%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시어머니는 60, 7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가장의 소득은 61~80만원이 23.3%, 41~60만원이 18.0%, 81~100만원이 17.0%, 101~150만원이 17.0%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거주인수는 7인 이상이 30.9%로 가장 높고 6인 이상이 29.1%, 5인 이상이 26.1%로 전반적으로 거주인수가 많게 나타나 3세대 동거가정의 가족규모는 핵가족인 분거가정보다 커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IV. 결과 및 논의

1. 3세대 동거가정의 주관적 주거과밀실태

3세대 동거가정의 주관적 주거과밀실태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주관적 주거과밀 실태는 시어머니가 평균점 20.8점이고 주부가 22.8점으로서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주부가 다소 높으며 둘 다 가능한 점수범위가 중앙점 24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앙점 이상의 주관적 주거과밀을 지각하는 비율이 시어머니는 25.8%, 주부는 37.4%로서 상당수의 3세대 동거가정에서 주

<표 1> 주부 및 시모의 주관적 주거과밀

| N=229 | | |
|-------|------------|------------|
| 구분 | 시 모 | 주 부 |
| | % (빈도) | % (빈도) |
| 상 | 3.9 (9) | 7.0 (16) |
| 중상 | 21.9 (50) | 30.4 (70) |
| 중하 | 46.3 (106) | 48.3 (110) |
| 하 | 27.9 (64) | 14.3 (33) |
| 평균 | 20.8 | 22.9 |
| 표준편차 | 0.78 | 0.76 |
| Max. | 36 | 40 |
| Min. | 8 | 8 |

거과밀을 지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과밀지각의 대체적인 분포는 시어머니의 경우 과밀지각 최고점수가 주부보다 낮으며 주부는 시어머니보다 중간점 이상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시어머니는 주부보다 중간점 이하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여 전체적으로 시어머니의 주관적 주거과밀은 주부보다 낮은 수준에서 분포되어 있다. 이같은 차이는 시어머니보다 연령이 낮은 주부는 주택을 포함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각 변인에 따른 주관적 주거과밀

주거환경적, 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 상황적 변인에 따른 주부 및 시모의 주관적 주거과밀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주거환경적 변인을 먼저 살펴보면 주부 및 시모의 주거과밀 지각은 방당거주인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주부와 시어머니 모두 방당거주인수 1.5인 이하일 때가 그 이상인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방당거주인수는 강대기(1982), 이경희(1987), Booth(1976) 등의 연구에서도 유의한 변수였던바 주거과밀 지각을 예측하는 객관적 척도로 적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주택형태에 따른 주부의 주관적 주거과밀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부의 주거과밀지각은 양육의 단독주택인 경우 가장 낮았다. 한옥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가장 높은 점수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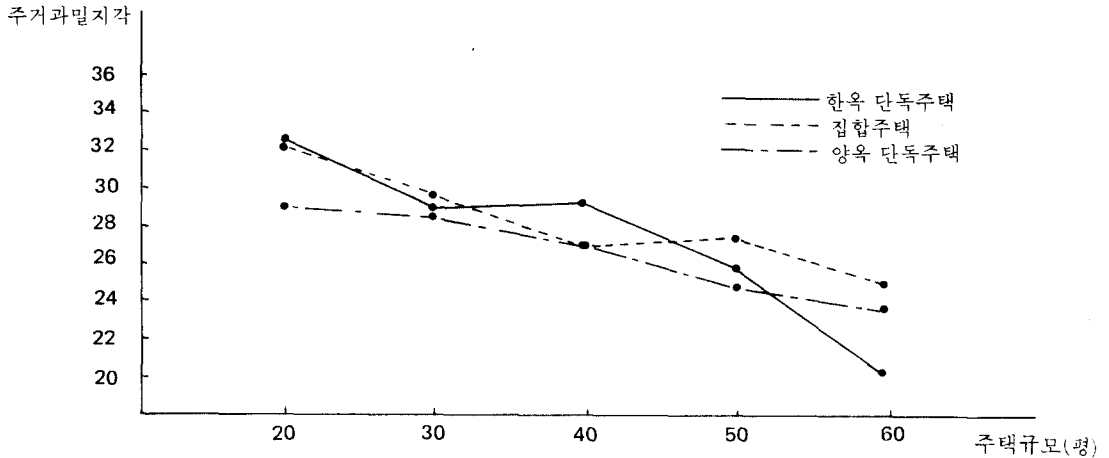


그림 1. 주택규모에 따른 주택유형별

었다. 그러나 주택규모에 따른 주택유형별 주관적 주거과밀을 살펴본 결과(그림 1) 한옥 단독주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특히 한옥의 주택규모가 적을 때 점수가 높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주택규모가 큰 한옥은 가장 과밀지각 점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작은 규모의 한옥과 주거시설수준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집합주택의 과밀지각 수준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주택소유유무에 따른 주부의 주관적 주거과밀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타가인 경우가 자가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경희(1987), Loo et al. (1984) 등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주거규모의 결핍은 주거만족도 뿐만 아니라 주거과밀지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당 주거면적에 따라 주부와 시모의 주관적 주거과밀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 변인은 방당거주인수와 상호대리 변인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1인당 주거면적이 넓어질수록 시모와 주부의 주거과밀 지각은 낮아졌다.

결혼지속기간에 따라 시모의 주관적 주거과밀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결혼지속기간이 3년 이하일 때보다 4~10, 11~15년인 경우 과밀지각은 높아

지다가 16년보다 길어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의 결혼지속기간이 길어지면서 노출되는 시모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 일정기간을 지나면 조절되어 새로운 안정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부의 주거과밀지각은 낮아지며 시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모의 주거과밀지각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주부와 시어머니의 주관적 주거과밀이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과 소득이 구조적인 변인으로 주택규모 및 시설수준과 높은 상관관계(주부 교육과 1인당 주거면적 $r=0.363$, $p<0.001$, 가구소득과 1인당 주거면적 $r=0.442$, $p<0.001$)를 갖는다는 점으로 부분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

상황적 변인 중 동거시기에 따라 시어머니의 주관적 주거과밀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녀 결혼 후 바로 동거할수록 시어머니의 주거과밀 지각은 낮으며 1~3년, 3~9년 사이에 자녀세대와 동거할수록 높게 나타났고, 10년 이후 동거하기 시작한 시어머니는 가장 주거과밀지각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여러 부분에서의 적응을 요구하는 신혼기를 거쳐 안정된 가정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가정관리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주부는 어려운 관계로 여겨

〈표 2〉 각 변인에 따른 주관적 주거과밀

| | 구 분 | N | 주부의 과밀지각 | Duncan's Test | 구 분 | N | 시어머니의 과밀지각 | Duncan' Test | |
|---------------------------------|-------------|----------|-------------|------------------|------------|----------|---------------|-----------------|-----|
| 주 거 환 경 적 변 인 | 방당 거주인수 | 1.5인 이하 | 74 | 2.520 | B | 1.5인 이하 | 74 | 2.242 | B |
| | | 1.6~2 | 89 | 2.914 | A | 1.6~2 | 89 | 2.652 | A |
| | | 2.1~2.5 | 31 | 3.169 | A | 2.1~2.5 | 31 | 2.926 | A |
| | | 2.6인 이상 | 36 | 3.139 | A | 2.6인 이상 | 36 | 2.914 | A |
| | F=9.33*** | | | | F=10.16*** | | | | |
| | 주택유형 | 집합 주택 | 89 | 2.934 | A B | 집합 주택 | 89 | 2.685 | A |
| | | 양옥 단독 주택 | 94 | 2.697 | B | 양옥 단독 주택 | 94 | 3.424 | A |
| | | 한옥 단독 주택 | 43 | 3.015 | A A | 한옥 단독 주택 | 43 | 3.519 | A |
| | F=3.53* | | | | F=2.46 | | | | |
| | 1인당 주거면적 | 4평 이하 | 97 | 3.085 | A | 4평 이하 | 97 | 2.876 | A |
| 4.1~5 | | 35 | 3.011 | A | 4.1~5 | 35 | 2.750 | A B | |
| 5.1~6 | | 36 | 2.773 | A B | 5.1~6 | 36 | 2.424 | B C | |
| 6.1~8 | | 34 | 2.507 | B C | 6.1~8 | 34 | 2.300 | C D | |
| 8.1~10 | | 28 | 2.406 | C | 8.1~10 | 28 | 2.033 | D | |
| F=7.74*** | | | | F=10.15*** | | | | | |
| 주택 소유유무 | 자 가 | 185 | 2.720 | | 자 가 | 156 | 2.457 | | |
| | 타 가 | 46 | 3.340 | | 타 가 | 35 | 2.929 | | |
| IT1=5.48*** | | | | IT1=3.31 | | | | | |
| 거주기간 | 12개월이하 | 44 | 2.878 | A | 12개월 이하 | 44 | 2.775 | A | |
| | 13~36 | 49 | 3.028 | A | 13~36 | 49 | 2.721 | A | |
| | 37~60 | 50 | 2.879 | A | 37~60 | 50 | 2.513 | A | |
| | 61~120 | 48 | 2.687 | A | 61~120 | 48 | 2.514 | A | |
| | 12개월 이상 | 39 | 2.798 | A | 12개월 이상 | 39 | 2.457 | A | |
| F=1.30 | | | | F=1.49 | | | | | |
| 거주인수 | 4인 이하 | 32 | 2.961 | A | 4인 이하 | 32 | 2.863 | A | |
| | 5인 | 60 | 2.737 | A | 5인 | 60 | 2.474 | B | |
| | 6인 | 67 | 2.869 | A | 6인 | 67 | 2.632 | A B | |
| | 7인 이상 | 71 | 2.900 | A | 7인 이상 | 71 | 2.552 | A B | |
| F=1.32 | | | | F=1.88 | | | | | |
| 통 계 적 | 주부취업 | 79 | 2.888 | | 취 업 | 79 | 2.669 | | |
| | 비취업 | 152 | 2.828 | | 비취업 | 152 | 2.554 | | |
| IT1=0.571 | | | | IT1=1.064 | | | | | |
| 변 인 | 결혼지속기간 | 3년 이하 | 23 | 2.951 | A | 3년 이하 | 23 | 2.684 | A B |
| | | 4~10 | 37 | 3.014 | A | 4~10 | 37 | 2.895 | A |
| | | 11~15 | 34 | 2.963 | A | 11~15 | 34 | 2.788 | A |
| | | 16~20 | 73 | 2.802 | A | 16~20 | 73 | 2.522 | A B |
| | | 21년 이상 | 63 | 2.736 | A | 21년 이상 | 63 | 2.378 | B |

| | | F=1.15 | | | F=3.48** | | | | |
|--------------|-------------|---------|-------|------------|-------------|--------|-------|-------|---|
| 주부의 교육수준 | 중학교이하 | 67 | 3.058 | A | 무학 | 104 | 2.839 | A | |
| | 고등학교 | 95 | 2.875 | A | 중학교 | 75 | 2.363 | B | |
| | | 초·전문대이상 | 69 | 2.614 | B | 국민학교이상 | 47 | 2.372 | B |
| F=6.12** | | | | F=11.24*** | | | | | |
| 가장의 소득 | 40만원이하 | 29 | 3.317 | A | 40만원이하 | 29 | 2.801 | A B | |
| | 41~70 | 69 | 3.098 | A | 41~70 | 69 | 2.902 | A | |
| | 71~100 | 66 | 2.727 | B | 71~100 | 66 | 2.480 | B C | |
| | 101~150 | 39 | 2.619 | B | 101~150 | 39 | 2.281 | C | |
| | 151~200 | 27 | 2.602 | B | 151~200 | 27 | 2.349 | C | |
| F=5.3*** | | | | F=6.33*** | | | | | |
| 동거시기 | 결혼직후부터 | 147 | 2.819 | B | 결혼직후부터 | 147 | 2.582 | A B | |
| | 3년 이내 | 50 | 2.920 | A B | 3년 이내 | 50 | 2.779 | A | |
| | 3~9 | 12 | 3.302 | A | 3~9 | 12 | 2.756 | A | |
| | 10년 이후 | 21 | 2.719 | B | 10년 이후 | 21 | 2.195 | B | |
| F=1.86 | | | | F=3.03* | | | | | |
| 동거기간 | 2년 이하 | 42 | 3.026 | A | 2년 이하 | 42 | 2.690 | A B | |
| | 3~5 | 30 | 3.050 | A | 3~5 | 30 | 2.774 | A | |
| | 6~10 | 34 | 2.750 | A | 6~10 | 34 | 2.636 | A B | |
| | 11~20 | 77 | 2.818 | A | 11~20 | 77 | 2.600 | A B | |
| | 21~30년 | 47 | 2.723 | A | 21~30 | 47 | 2.374 | B | |
| F=1.60 | | | | F=1.53 | | | | | |
| 사회활동 참여 | 없 음 | 14 | 3.034 | A | 없 음 | 24 | 2.738 | A | |
| | 1 | 129 | 2.962 | A | 1 | 130 | 2.687 | A | |
| | 2 | 59 | 2.714 | A | 2 | 56 | 2.534 | A | |
| | 3 | 22 | 2.495 | A | 3 | 16 | 1.926 | B | |
| | 4이상 | 7 | 2.714 | A | 4이상 | 5 | 2.275 | B | |
| F=2.77 | | | | F=4.07** | | | | | |
| 가족주의 | 25점이하(근대적) | 53 | 2.816 | A | 25점이하(근대적) | 53 | 2.544 | A | |
| | 26~30 | 122 | 2.863 | A | 26~30 | 122 | 2.599 | A | |
| | 31~35 (전통적) | 55 | 2.882 | A | 31~35 (전통적) | 55 | 2.648 | A | |
| F=0.11 | | | | F=0.24 | | | | | |
| 가정관리 의사결정 | 항상주부의견 | 37 | 2.590 | B | 항상주부의견 | 37 | 2.381 | B | |
| | 대개주부의견 | 86 | 2.788 | A B | 대개주부의견 | 86 | 2.446 | B | |
| | 대개시모의견 | 74 | 3.037 | A | 대개시모의견 | 74 | 2.941 | A | |
| | 항상시모의견 | 33 | 2.931 | A | 항상시모의견 | 33 | 2.468 | B | |
| F=3.36* | | | | F=7.75*** | | | | | |
| 기대주택 방 수 | 0 | 57 | 2.546 | B | 0 | 57 | 2.199 | B | |
| | 1 | 78 | 2.846 | A | 1 | 78 | 2.652 | A | |
| | 2 | 55 | 3.072 | A | 2 | 55 | 2.767 | A | |

| | | F=7.81*** | | | | F=9.33*** | | | |
|-------------------|----------|-----------|-------|-----|----------|-----------|-------|---|--|
| 재 산 증 여 정 도 | 집한채값 이상 | 15 | 2.731 | A | 집한채값 이상 | 15 | 2.370 | A | |
| | 집한채값 정도 | 42 | 2.836 | A | 집한채값 정도 | 42 | 2.415 | A | |
| | 전세비용 정도 | 27 | 3.015 | A | 전세비용 정도 | 27 | 2.657 | A | |
| | 조금 도와줌 | 49 | 2.849 | A | 조금 도와줌 | 49 | 2.717 | A | |
| | 전혀 없음 | 97 | 2.845 | A | 전혀 없음 | 97 | 2.636 | A | |
| | | F=0.40 | | | | F=1.28 | | | |
| 생활비 부담 | 부모님 전담 | 17 | 2.471 | B | 부모님 전담 | 17 | 2.471 | A | |
| | 자녀일부 분담 | 31 | 2.907 | A B | 자녀일부 분담 | 31 | 2.432 | A | |
| | 반씩 분담 | 10 | 2.813 | A B | 반씩 분담 | 10 | 2.587 | A | |
| | 부모님일부 분담 | 12 | 3.083 | A | 부모님일부 분담 | 12 | 2.894 | A | |
| | 자녀세대 전담 | 160 | 2.874 | A B | 자녀세대 전담 | 160 | 2.622 | A | |
| | | F=1.44 | | | | F=0.93 | | | |

지는 고부관계가 보다 밀착되어 새로운 적응을 필요로 하며, 시어머니와 공동의 의사결정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시기에 동거를 시작하는 시어머니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많은 긴장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긴장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개인적 방해의 상황을 만들어 이것이 주관적인 주거과밀을 지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부의 경우 동거시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주부의 주거과밀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같은 유형으로 과밀지각이 차이를 보였다.

시어머니가 사회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할수록 시어머니의 주거과밀지각은 낮아졌다. 노인의 사회활동참여는 노인과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주며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김중숙 1986, 최혜경 1985)들을 통해 볼 때 예측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가정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정도에 따라 주부와 시모의 주거과밀지각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주부는 가정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대부분 주부 자신이 주도하는 경우 주거과밀지각이 가장 낮았으며 공동의 의사결정 상태를 나타내는 점수범위인 41~50인 경우 주부의 주관적 주거과밀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어머니는 가정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대부분 주부가 주도하거나 시어머니가 주도하는 경우 주거과밀지각이 낮았으나 공동으로 의사결정하

는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동의 의사결정은 최종단계의 결정이 1인에 의해 내려진다고 해도 갈등을 발생시키기 쉬우며(장명옥, 1984) 이것은 주거과밀을 지각케하는 긴장으로 여겨진다고 볼 수 있다.

기대주택방수에 따라 주부와 시모의 주관적 주거과밀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의 갯수와 가족원들이 생활하기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의 갯수의 차이가 클수록 시모와 주부의 주관적 주거과밀은 높아졌다. 이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절대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기 보다는 프라이버시의 성취수준과 기대수준의 차이로서 개념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주거과밀은 절대적인 주거수준 보다는 성취된 주거수준과 기대하는 주거수준의 차이로서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방당거주인수, 주택유형, 주택소유유무, 1인당 주거면적, 주부의 교육수준, 소득, 가정관리 의사결정, 기대주택규모에 따라 주부의 주관적 주거과밀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모의 경우는 방당거주인수, 1인당 주거면적, 결혼지속기간, 시모의 교육수준, 소득, 동거시기, 시모의 사회활동참여, 가정관리 의사결정, 기대주택규모에 따라 주관적 주거과밀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3. 주관적 주거과밀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시아머니와 주부의 주관적 주거과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그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에 포함시킬 변인은 앞서 분석한 ANOVA의 결과와 단순상관계가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선택된 주거환경적 변인, 인구통계적 변인, 상황적 변인 각각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주택의 규모나 시설 등의 주거수준은 소득, 교육 등 인구통계학적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주관적 주거과밀에 미치는 주거환경적 변인의 효과가 상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아머니의 경우 선택된 변인들은 1인당 주거면적, 방당거주인수, 주택소유 유무, 거주기간이며 주부의 경우 1인당 주거면적, 방당거주인수, 주택소유 유무이다. 1인당 주거면적과 방당거주인수는 다공선성을 지닌($r = 0.358$, $p < 0.001$) 변인이므로 주관적 주거과밀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선택하여야 한다. 시아머니의 경우 1인당 주거면적, 주택소유 유무, 거주기간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회귀식($R = 0.172$, $F = 13.420$, $p < 0.001$) 방당거주인수, 주택소유 유무, 거주기간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회귀식($R = 0.120$, $F = 7.976$, $p < 0.001$)을 비교한 결과 1인당 주거면적을 포함한 회귀식의 설명력이 더 높았다. 주부의 경우도 1인당 주거면적을 포함하는 회귀식이($R = 0.114$, $F = 12.578$, $p < 0.001$) 설명력이 더 높았다.

주관적 주거과밀의 객관적 과밀 척도로 비교할 수 있는 변인으로 거주인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거과밀지각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아($R = -0.008$) 비교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3세대 동거가정의 주관적 주거과밀을 예측하는데 가장 적합한 척도는 1인당 주거면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주거과밀이 잘 계획된 방의 구획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조사대상

가구가 핵가족이었으나 본 연구는 3세대 가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3세대 동거가정을 위한 주택규모는 핵가족의 경우보다 거주인수 대비 주거면적이 더 넓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상황적 변인 역시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처음에 고려된 변인들은 거주인수, 주부와 시모의 연령, 결혼 지속기간, 주부와 시모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주부 취업유무이다. 최종적으로 회귀식에 포함된 변인들은 주부의 경우 결혼지속기간, 주부와 시모의 교육수준이며($R = 0.1749$, $F = 15.193$, $p < 0.001$) 시아머니의 경우는 결혼지속기간, 시모의 교육수준, 주부의 교육수준이다($R = 0.1812$, $F = 15.193$, $p < 0.001$).

상황적 변인으로 처음에 고려된 변인들은 동거시기, 동거기간, 주부와 시모의 사회활동 참여, 기대주택수준, 가족주의, 가정관리의 의사결정, 시모의 가정내 지위이다. 최종적인 회귀식에 포함된 변인들은 주부의 경우 기대주택수준, 가정관리의 의사결정, 시모의 사회활동참여이며 시아머니의 경우 기대주택수준, 가정관리의 의사결정, 시모의 사회활동참여, 시모의 가정내 지위이다*.

주거환경적 변인, 인구통계적 변인, 상황적 변인 각각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중회귀분석에서 결정된 변인들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단순회귀분석보다 모든 변인들을 포함시켜 stepwise regression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stepwise regression은 가능한 적은 수의 변수로 최적의 회귀식을 산출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stepwise regression에 포함시키는 기준은 통계적 유의수준 15%로 설정하였다. <표 3>에 나타난 순서는 분산을 설명하는 크기 순이다 (partial R^2).

Stepwise regression을 한 결과 주부의 주관적 주거과밀의 분산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들은 1인당 주거면적, 기대주택수준, 주택소유유무, 주부의 교육수준, 결혼지속기간, 시아머니의 교육수준이었

*주부의 연령과 결혼지속기간 그리고 주부의 교육과 가구소득은 다공선성이 있으므로 각각을 포함시킨 회귀식의 설명력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 3〉 주부의 주관적 주거과밀에 대한 Stepwise Regression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 | 주관적 주거과밀 | |
|----------------|-----------|------------|--|-----------------------|-----------|
| | B | β | | R ² Change | F |
| 1인당주거면적 | -0.027 | (-0.145)* | | 0.114 | 24.775*** |
| 기대주택수준 | 0.164 | (0.246)*** | | 0.161 | 10.556** |
| 주택소유유무 | -0.242 | (-0.126) | | 0.193 | 7.650** |
| 주부교육수준 | -0.118 | (-0.203)* | | 0.214 | 4.891* |
| 결혼지속기간 | -0.018 | (-0.199)* | | 0.250 | 9.068** |
| 시모의 교육수준 | -0.103 | (-0.164)* | | 0.266 | 4.032* |
| 가정관리의사결정 | 0.121 | (0.107) | | 0.274 | 2.244 |
| 회귀상수 | 3.675 | | | | |
| R ² | 0.274 | | | | |
| F | 10.043*** | | | | |

*p<0.05

**p<0.01

***p<0.001

다. 그리고 단순회귀분석에서 얻은 회귀계수를 살펴 보면, 주부의 주관적 주거과밀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은 상황적 변인으로서 기대주택수준이 가장 크며 ($\beta=0.246$, $p<0.001$), 그 다음은 개인적 변인인 주부의 교육수준 ($\beta=-0.203$, $p<0.05$), 결혼지속기간 ($\beta=-0.199$, $p<0.05$), 시어머니 교육수준 ($\beta=-0.164$, $p<0.05$), 1인당 주거면적 ($\beta=-0.145$, $p<0.05$)의 순이다. 즉, 주부의 주관적 주거과밀은 기대주택수준이 높을수록, 주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지속기간이 짧을수록, 시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기대주택수준이 높다는 것은 주거공간에 대한 필요를 의식하는 것으로 주관적 주거과밀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이경희(198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주부 교육수준의 부적인 영향은 기대수준을 높임으로써 주거과밀지각에 영향을 준다는 최상림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교육수준이 주거과정 지각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경희(1987)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주부의 교육수준은 소득변인을 통해 주거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시어머니의 교육수준과 함께 주부의 주거과밀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교육변인이 교부간의 가정내 지위와 역할관계를 확립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특히 3세

대 동거가정이라는 주거 상황에서 교육변인은 주거과밀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결혼지속기간의 주거과밀 지각에 대한 부적인 영향은 결혼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3세대 동거 상태에서 주생활에 대한 적응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3세대 동거가정에서의 높은 주거과밀 지각은 부모-자녀동거 가정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실제 생활과정에서 부정적 선입관이 약화되고 또한 상당한 정도의 적응기제로 조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소유유무는 partial R² 값이 0.0325($p<0.01$)로 주거과밀 지각과 관계가 있으나 단순회귀의 과정을 거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주부의 주거과밀 지각을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3세대 동거가정의 경우 객관적인 주거환경적 변인보다 더 많은 수의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변인이 주부의 주거과밀지각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결정된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시어머니의 주관적 주거과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stepwise regression을 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partial R²를 통해보면 시모의 주관적 주거과밀의 분산을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변인은 주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인당 주거면적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표 4〉 시모의 주관적 주거과밀에 대한 Stepwise Regression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 | |
|----------------|-----------|-------------|-----------------------|-----------|
| | 주관적 주거과밀 | | R ² Change | F |
| | B | β | | |
| 1인당주거면적 | -0.045 | (-0.228)** | 0.247 | 33.247*** |
| 기대주택수준 | 0.154 | (0.219)*** | 0.183 | 8.532** |
| 시모의사회활동참여 | -0.095 | (-0.189) | 0.205 | 5.315* |
| 결혼지속기간 | -0.024 | (-0.253)*** | 0.226 | 5.835* |
| 시모의교육수준 | -0.099 | (-0.152)* | 0.256 | 7.684** |
| 주부의교육수준 | -0.092 | (-0.150) | 0.270 | 3.545 |
| 회귀상수 | 3.768 | | | |
| R ² | 0.270 | | | |
| F | 11.582*** | | | |

*p<0.05

**p<0.01

***p<0.001

기대주택수준, 시어머니의 사회활동참여, 결혼지속기간, 시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순서였다.

최종적인 변인들은 단순회귀분석하여 얻은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시어머니의 주관적 주거과밀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가 가장 큰 것은 결혼지속기간($\beta = -0.253$, $p < 0.001$)이며 다음은 1인당주거면적($\beta = -0.228$, $p < 0.01$), 기대주택수준($\beta = 0.219$, $p < 0.001$), 시어머니의 교육수준($\beta = -0.152$, $p < 0.005$)의 순이었다.

주부의 경우도 유의한 변인이었던 결혼지속기간은 대체적으로 주부의 연령을 대신할 수 있는 변인이다. 이러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가정은 결혼적령기에 대한 규범이 잘 지켜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혼지속기간의 증가는 자녀수의 증가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시모의 주관적 주거과밀에 대해 부적인 영향을 갖는다는 것은 3세대 가정의 경우 결혼지속기간이 자녀수의 증가를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는 것 이상으로 고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주관적 주거과밀을 낮춘다고 볼 수 있다. 1인당 주거면적은 주관적 주거과밀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대주택수준은 현재의 주거수준과 이상적인 욕구수준과의 차이로서 그 크기가 클수록 현재 주거상황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며 따라서 주거과밀지각이 높아진다. 이같은 결과는 이경희의 연구와 일치한다.

시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가 제한된 상태였던 과거의 시대적인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주부의 경우보다 소득에 대한 대리변인으로서 기능은 약한 편이다. 결국 교육변인이 갖는 주관적 주거과밀조절 내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확신할 수 있다.

시어머니의 사회활동참여는 주관적 주거과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지만(partial R²=0.022, F=5.315, $p < 0.05$) 다른 변인과의 상관관계로 인해(예를들면, 시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시어머니의 사회활동참여의 단순상관관계가 0.241, $p < 0.001$) 최종적인 중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시모의 주관적 주거과밀은 특히 결혼지속기간 그리고 시모의 교육수준, 기대주택수준과 같은 상황적 변인으로 잘 설명되고 있어 주관적 주거과밀에 대한 비주거적 특성의 영향력을 잘 알 수 있다. 결국, 3세대 동거가정의 주부와 시어머니의 주관적 주거과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1인당주거면적, 기대주택수준, 결혼지속기간, 주부의 교육수준(주부의 경우에만 해당), 시어머니의 교육수준으로, 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한 이경희의 연구에서 방당거주인수, 주거시설수준, 주택규모, 주택유형, 주택소유유무, 가족수, 가구의 소득, 주부취업여부등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백분율로 살펴본 최상

림의 연구는 1인당 주거면적, 청소년 자녀유무, 거주기간, 이전 주택유형, 교육, 소득, 주택소유형태 등이 주관적 주거과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밝힌 것을 비교하면 특히 3세대 동거가정의 경우, 주거과밀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와 시어머니의 교육수준, 결혼지속기간이 특징적인 변인으로 나타나 이들 변인이 주관적 주거과밀에 대한 조절과정에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택정책적인 면에서나 노인의 욕구충족의 관점에서 볼 때 개별가정을 통해 사적인 부양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3세대 동거가정은 프라이버시의 침해, 객관적 과밀 수준의 증가로 주관적인 주거과밀을 지각하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는 3세대 동거가정의 주관적 주거과밀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3세대 동거가정이라는 주거상황에서 주부와 시어머니의 주관적 주거과밀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세대 동거가정에서 주관적 주거과밀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과밀 척도는 1인당 주거면적이었다. 결국 3세대 동거가정의 주거과밀지각을 감소시키는 물리적 방법은 거주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주택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둘째, 주거환경적 변인, 인구통계적 변인, 상황적 변인에 따른 주부와 시어머니의 주관적 주거과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주부의 경우 방당거주인수가 낮을수록, 주택형태가 양육의 단독주택일수록, 1인당 주거면적이 넓을수록 주택을 소유할수록,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가정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이 주부에 의해 주도될수록, 기대주택방수가 적을수록, 주관적 주거과밀은 낮아졌다.

시어머니의 경우 1인당 주거면적이 넓을수록, 방당거주인수가 적을수록, 결혼지속기간이 3년이하로 짧은 경우와 16년 이상 길어질수록, 시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세대와의 동거시기가 결혼직후이거나 10년 이후부터일 때, 시어머니의 사회활동 참여가 많을수록, 가정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이 전체적으로 주부에 의해 혹은 전체적으로 시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질수록 시어머니의 주관적 주거과밀은 낮아졌다. 셋째, 주부와 시어머니의 주관적 주거과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주부의 경우 기대주택수준, 주부의 교육수준, 결혼지속기간, 시어머니의 교육수준, 1인당 주거면적의 순으로 종속변인에 대해 상대적인 기여도가 큰 유의한 변이들이며, 시어머니의 경우 결혼지속기간, 1인당 주거면적, 기대주택수준, 시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순으로 종속변인에 대해 상대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결국 주부와 시어머니의 주관적 주거과밀에 대한 영향변인들의 내용은 별 차이가 없으며 주부의 경우는 이상적인 주택의 규모에 대한 기대가, 시모의 경우는 결혼지속기간이 각각의 주관적 주거과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상의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3세대 동거가정의 주관적 주거과밀을 조절할 수 있는 물리적 방법은 거주인수에 따라 주택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는 핵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거과밀지각 연구에서 과밀지각의 예측변인이 방당거주인수임을 밝힌 것과 비교할 때 상이한 결과로서 결국 3세대 동거가정의 경우 주거과밀지각은 핵가족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3세대 동거가정의 주부는 현재의 주거수준과 기대하는 이상적인 주거수준과의 차이가 주관적 주거과밀을 가장 많이 설명한다. 즉 주부의 교육수준이나 결혼지속기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상황적 변인도 주관적 주거과밀지각을 상당 부분 설명하고 있지만 가장 높은 예측력을 지닌 과밀지각 변인은 개인적 기대와 관련된 주거변인이라는 점이다. 셋째, 반면 노인인 시모의 경우 가장 높은 예측력을 지닌 변인이 결혼지속기간으로 나타난 것은, 시모의 과밀지각에 주거환경변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의 결혼에 따른 며느리와의 관계가 오래 유지되면서 적응적인 주거과밀지각 기제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3세대 동거가정의 주생활 만족

을 위해 주부와 시모의 주거과밀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주부와 시모의 교육수준, 결혼지속기간 변인이 주관적 주거과밀의 조절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의 주관적 주거과밀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주거과밀지각 척도에 관한 연구, 노인의 주거과밀지각을 형성하는 하위차원에 대한 연구가 3세대 동거가정의 주거과밀지각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대기, 옥양련, “주거지역 과밀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 논문집, 20집, 12, 부산대학교, pp. 179-208.
- 2) 김한초 외, 한국가족의 표준모형개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3) 문숙재,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본 가정의 안전기능”, 대한가정학회지, 24권 4호 1983, pp. 115-124.
- 4) 박하전, “집합주거에 있어서의 3대직계가족의 주생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5.
- 5) 이경희, “도시가구의 주거과밀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7.
- 6) 임춘희, 정옥분, “분거한 도시 장남 부부의 부양 의식유형”, 대한가정학회지, 26권 1호, 1988, pp. 163-177.
- 7) 장명옥, 가정관리학, 교문사, 1984.
- 8) 조원덕, “직계 3세대를 위한 주거계획”,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4.
- 9) 지 순, “노인 복지시설의 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노인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 주택, 37, 1978, pp. 60-71.
- 10) 최상림, “아파트 거주민의 주거과밀 지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4.
- 11) 현두일, “한국노인의 생활구조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건대학술지, 20집, 1976, pp. 463-531.
- 12) 홍성애, “여자노인의 가정내 지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3.
- 13) Altman, I. “Privacy: A Conceptual analysis”,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8, No. 1, pp. 7-29.
- 14) Baldassare, M., “The Effects of Household Density on Subgroup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6, pp. 110-148.
- 15) _____, “Residential Crowding in Urban United States”, Berkeley, CA: Univ. of California Press.
- 16) Baum A. and Glenn E. Davis, “Spatial and Social Aspects of Crowding Perception”,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8, No. 4, 1976, pp. 522-543.
- 17) Baum, A. and S. Valins, “Residential Environments, Groupsize and Crowding”,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73, pp. 211-212.
- 18) Booth. A. and J.H. Edwards, “Crowding and Family Rel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76, Vol. 41, pp. 300-321.
- 19) Desor, J., “Toward a Psychological Theory of Crow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1972, pp. 79-83.
- 20) Dubos, R., *So Human an Animal*, New York: Charles Scribner, 1968.
- 21) Fisher, Claude, M. Baldassare, and R. Ofshe, “Crowding Studies and Urban Life: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41, 1975. pp. 406-418.
- 22) Fuchs, Anke: *Solidarität in der Sozialpolitik*, In *Die neue Gesellschaft*, 8, 1981, 28. Jg. Bonn, S. 672.
- 23) Gove, and. Hughes, “Possible Causes of the Apparent Sex Differences in Physical Health: An Empirical Investig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1979, pp. 126-46.

- 24) Gross, I.M., E.W. Crandall and M.M. Knoll,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Prentice-Hall, 1980.
- 25) Holahan, C.J., Environmental Psychology, Random House, 1982.
- 26) Jourard, S.M., "Some Psychological Aspects of Privacy",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31, 1966, pp. 307-18.
- 27) Kira, A., The Bathroom: Criteria for Design, Ithaca, N.Y.:Center for Housing and Environmental Studies, Cornell Univ., 1966.
- 28) Loring, W.C., "Comments on Dyckman", pp. 53-56 재인용, William Ewald (ed.), Environment for Man: The Next Fitting Years, Bloomington, Ind.: Indiana Univ. Press.
- 29) Loo C. and P. Ong, "Crowding Perception, Attitude, and Consequences among the Chinese", *Environment and Behaviour*, Vol. 16, No. 1, 1984, pp. 55-87.
- 30) Milgram S., "The Experience of Living in Cities", *Science*, Vol. 167, 1970, pp. 1461-68.
- 31) Mitchell, R.E., "Some Social Implications of High Density Hous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6, 1971, pp. 18-29.
- 32) Montano D. and John A., "The Perception of Crowding in Interpersonal Situations: Affective and Behaviora Responses",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16, No. 5, 1984, pp. 643-66.
- 33) Proshansky, H.M., W.H. Ittelson, and L.G. Rivlin (eds.), Environmental Psychology: Man and His Physical Setting,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0.
- 34) _____, "Freedom of Choice and Behavior in a Physical Setting", Environmental Psychology, ed., H.M. Proschansky et al.,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6.
- 35) Schmitt, R., "Density, Health and Social Disorganization", *Journal of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2, 1966, pp. 38-40.
- 36) Stokols, D., "A Social-psychological Model of Human Crowding Phenomenon",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Journal*, March, 1972, pp. 72-83.
- 37) _____, "On the Distinction between Density and Crowding: Som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Psychological Review*, Vol. 79, 1972, pp. 275-98.
- 38) _____, "The Expirence of Crowding in Primary and Secondary Environments",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8, 1976, pp. 49-86.
- 39) Streib, G.F. and R.W. Beck, "Older Families: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2, pp. 205-24.
- 40) Sundstrom, E., "Crowding as a Sequential Process: Review of Research on the Effects of Population Density on Humans", Human Response to Crowding, ed. A. Baum, and Y. M. Epstein, Hillsdale, N.J.: Erlbaum, 1978.
- 41) Taylor R.B., "Perception of Density: An Individual Differences?", *Enviroment and Behavior*, Vol. 13, No. 1, 1981, pp. 3-21.